"한국 전통의상 예뻐요" 전남대학교의 '2012국제겨울학교'에 참여한 일본 대학생들이 15일 광주향교 충효관에서 전통의상 체험을 한 뒤 즐거운 표정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학교주변 유해 업소 경찰청 대대적 단속

경찰청은 16일부터 내달 23일까지 학교 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청소년의 탈선을 막고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행정안전부 및 교육과학기술부와 함께 진행하는 이번 단속은 학교 주변에 난립한 키스방 등 신 변종 불법업소 등에 초점이 맞춰진다. 청소년 고용금지 의무 위반 여부, PC방 등에 대한 심야시간대 출입금지 의무 위반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하기로 했다.

경찰은 민관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16일부터 22일까지를 홍보·계도 기간으로, 23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를 본격 단속 기간으로 설정,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은 단속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및 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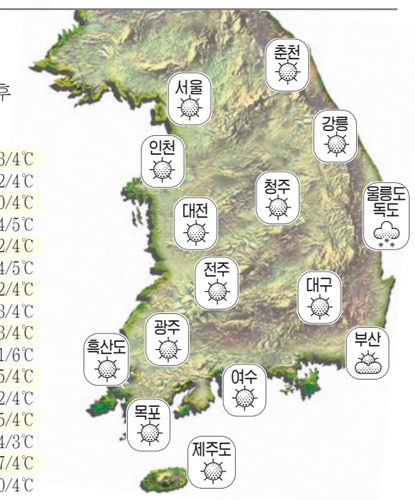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7시 19분 해짐 18시 15분 / 달뜸 03시 31분 달짐 12시 39분

구름많아요

오전에는 대체로 맑고 오후에는 구름이 많겠다.

광 주	구름조금	-3/4℃
목 포	구름조금	-2/4℃
여 수	구름조금	0/4℃
나 주	구름조금	-4/5℃
완 도	구름조금	-2/4℃
구 례	구름조금	-4/5℃
강 진	구름조금	-2/4℃
해 남	구름조금	-3/4℃
장 흥	구름조금	-3/4℃
순 천	구름조금	-1/6℃
영 광	구름많음	-5/4℃
진 도	구름조금	-2/4℃
전 주	구름조금	-5/4℃
군 산	구름조금	-4/3℃
남 원	구름조금	-7/4℃
흑산도	구름조금	0/4℃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1.0~2.0m
먼바다	북서~북	1.5~2.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0~2.0m
먼바다	북서~북	1.5~2.5m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1.5~2.5m
먼바다	북서~북	2.0~3.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0~2.0m
먼바다	북서~북	1.5~2.5m

체감온도	동파지수	뇌졸중지수
관심	보통	낮음

	밀물	썰물
목포	09:05 21:07	01:17 14:43
여수	04:36 16:33	10:57 22:47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7(금)	18(토)	19(일)	20(월)	21(화)	22(수)
날 씨						
최저/최고	-5/1	-6/1	-6/3	-3/6	-2/8	2/8

"청소년 인터넷 왕따는 범죄"

안티카페 개설 특정 학생 집단 비방
광주경찰 110개 적발 자진폐쇄 조치

#화순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A(14)양은 지난해 11월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같은 반인 B(14)양에 대해 "B는 싫어, 오늘 놀아줬더니 좋아해야 ㅋㅋ, 아 글고 자꾸 붙어 싫어" 등 욕설과 함께 B양에 대한 글을 집중적으로 올렸다. 이 카페에는 A양의 친구 9명이 가입했다.

#강원도 원주시 소재 한 중학교에 다니는 C(15)군은 친구 16명과 지난 2010년 11월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같은 학교 D(15)군을 따돌렸다. C군은 "오늘도 D를 보았다. 기분이 ×같다" 등 카페에는 D군에 대한 비방글이 가득했다.

같은 반이나 학교의 특정 학생에 대해 집단으로 욕설을 가하는 이른바 인터넷 '안티 카페'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사이버안전드림팀)는 15일 "인터넷에 개설된 안티 카페 110개를 단속, 자진폐쇄토록 조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적발된 안티 카페를 개설한 학생 부모와 학교에 직접 전화해 카페 해지를 당부하고, 포털사이트에도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단속된 안티 카페의 개설 학생은 초등학생이 5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중학생 41%, 고등학생 9%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은 주로 이름, 학교명, 반명 등의 별칭을 이용해 카페를 개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설 동기는 '특정 학생의 외모나 행동이 미워서' 40% '싸우고 나서' 31%, '편을 가르기 위해' 15%, 기타 14%로 집계됐다. 경찰은 또 문자(게시글) 폭력의 정도가 심한 경우 가·피해학생 및 학부모 면담, 전문가 참여 조사 실시, 사랑의 교실 운영 등으로 선도를 조건으로 해 훈방 조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갈수록 늘어나 사이버 학교폭력을 지속적으로 단속, 건전한 사이버 환경과 안전한 학교생활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방경찰청은 심각해지는 사이버 학교폭력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전문수사관 18명으로 사이버안전드림팀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남학생 135명에 여학생은 40명

광주지역 중학교 남녀 성비 불균형 심각

광주지역 상당수 중학교에서 성비(性比)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중학교 신입생 배정 결과 10여개 학교에서 남녀 학생수 격차가 최대 4배에 달했다. 남구 주월중은 남학생이 135명인 반면 여학생은 40명에 그쳤다. 무진중과 봉선중은 남학생이 각각 163명과 180명이지만 여학생은 70명과 68명이다.

반면 효광중은 남학생은 72명에 불과하지만 여학생은 179명으로 여초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중앙중과 경신중의 경우 남학생은 각각 115명과 119명인 반면 여학생은 배 가량 많은 205명과 203명에 달했다.

남초 학교는 남구 봉선, 주월 등 2학군 지역으로 사립 여학교가 집중된 곳이다. 여초 학교는 화정,쌍촌 등 남학교가 밀집된 3학군 지역이다.

심각한 성비 불균형은 혼성반 편성도 여의치 않은 등 학사운영 애로는 물론 화장실 배정, 생활지도 등 문제가 적지 않다.

광주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일부 학교의 성비 차가 큰 것은 학군내 남중, 여중 등 사립학교가 집중된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광주지역 중학 신입생은 남 1만778명, 여 9952명 등 2만730명으로 남학생이 800명가량 많다. /윤영기기자 penfo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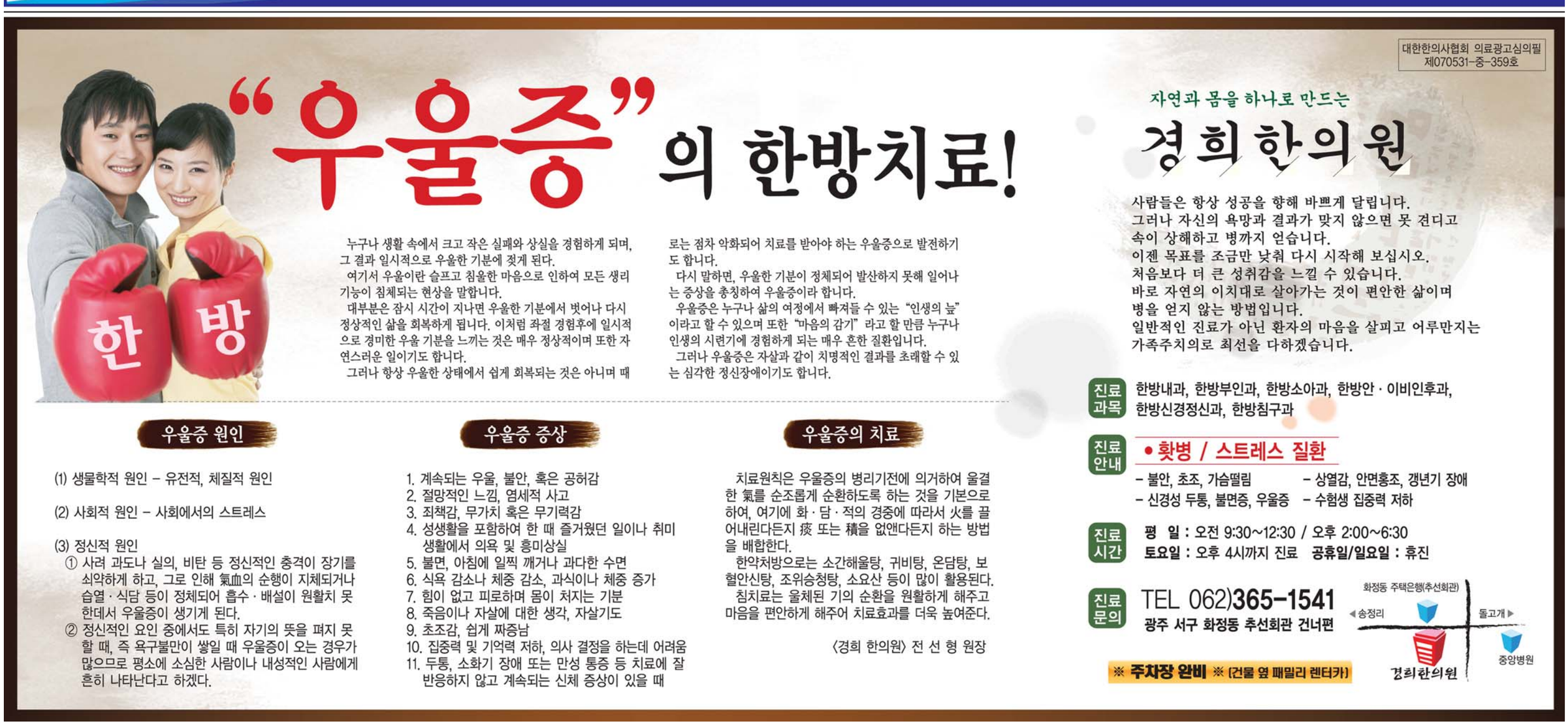
광주 초등생 '축구하면서 영어 배워요'

서부교육청-광주FC, 영어축구 교실 개설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이 지역연고 축구단 광주FC와 함께 영어축구 스포츠단을 운영한다. 광주서부교육청은 15일 광주FC와 방과후 스포츠단 협약을 하고 '레몬 어린이 영어축구 교실'을 개설하기로 했다.

축구교실은 방과후 프로그램의 하나지만 프로구단과 함께 영어를 배우는 축구교실을 여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있는 일이다.

다음주 10개 초등학교를 선정, 3월부터 운영하며 각 학교에서는 1,2학년 3,4학년 4,5학년 등 3개반 16명씩 선발한다. 국제축구연맹으로 부터 코치 자격증을 받은 원어민 2명이 매주 1차례 팀을 지도한다.

광주FC는 외국인 코치와 보조인력, 심판, 구급요원, 훈련용품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서부교육지원청 김 승 교육장은 "학생들이 레몬어린이 축구교실에서 공을 차며 자연스럽게 영어를 배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